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성경: 히브리서 1장 1-9절  
(Tag:기독교,예수그리스도,계시,주님,세계관,신약성경,히브리서)

1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그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4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쁨으로 얻으심이니

5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6 또 그가 만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7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며

8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며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9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히1:1-9)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치신 분이 아니시다. 모든 별들 곧 모든 항성들과 위성들, 행성, 혜성들과 유성(별뚥별)들과 우주 공간에 가득

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우주의 광대함, 또 오고 갈 때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릴까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온 우주를 다스릴 만큼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 지혜가 무궁하시며, 온 우주를 장악할 만큼 힘이 세시기 때문에 전능하시다.

그리고 질서와 법칙을 정하셔서 자기들끼리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다. 과학자들은 이런 법칙과 질서들을 발견해 내면서 놀라는 자들이다. 과학자들은 이런 법칙과 질서들을 새로 정하거나 만들어내지 못한다. 발견하는 것도 놀라운데, 아직 발견해 내지 못한 것들이 더 많다.

하나님 자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만물에 대한 탐구만으로도 사람의 일생은 놀람의 연속일 수 있다.

그러므로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자신의 주인도 내가 아니다. 나의 삶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를 맡은 자이다. 하나님은 나를 나에게 맡기셨다. 나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셨다. 나의 삶을 나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얼마든지 내 맘대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그를 의지해서, 그의 도우심을 받고, 그의 말씀을 힘 입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자기 일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그 원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준다.

태양은 나를 위해서 솟아오르지 않는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

이지도 않는다. 나는 가장 중요한 존재도 아니며, 세상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가게 되어 있다.

(강원도 홍천 도심리교회 홍동완목사님의 간증. 분대장 시절에 산불로 산 3개를 태운 사건, 이 사건으로 다시금 신학을 결심하게 됨.)

우주의 주인도 하나님, 나의 주인도 하나님,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  
내 삶의 목적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다.

1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는 창조력이 있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는 능력과 생명과 창조력이 들어있다.

말에는 힘이 있다.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많다.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할 때 악한 영향력이 나온다. 그러므로 말을 분별해야 한다.

만물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을 들으며 거짓은 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거짓도 믿으려 들기 때문에 오류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오류를 피할 수 있는가? 좋은 방법은 나 혼자 듣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들으면 된다. 즉, 오류 검증 시스템이 작동되어

야 한다. 모든 시스템은 완벽할 수 없지만,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곧 이상숭배이다. 여기에서 내 식구, 내 고향, 내 민족이 파생되고, 내 식구는 내 뜻대로, 내 민족도 내 생각대로 해야 한다는 이상숭배에 빠진다. 이상숭배의 핵심이 자기를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우리라고 생각하면 나를 먼저 생각하는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들끼리 얼굴을 보면서 관계를 맺으니 무관심하지 못하며 예절을 지키게 된다.

내 생각 보다는 우리생각이 가능해야 한다.

내생각 < 우리생각  
개인적 < 공동체적  
이기적 < 이타적  
자기 중심적 < 사회 중심적  
내 이익 권리 < 공익  
내 안으로 < 내 밖으로  
나의 통제 < 하나님의 통치  
나 중심 < 하나님 중심  
두려움 < 자유함  
암적 < 새생명의 탄생

‘우리’ 라는 개념은 ‘무리배’ 라는 개념과 다르다.(우리는 식구를 뜻하고 무리배는 다분히 이익집단적임. 뭔가 자기 개인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모임.) 무리배는 나 홀로 있음을 두려워 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임. 무리배 속에 나는 무리배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여김. 무리배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 함.

#### -방법론

어떻게 자기 우상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가능해 진다. 예수님이 내 영혼에 말씀하게 하시면 가능해진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신다. 그래야 나의 행동이 공동체적이 된다.

나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야 한다. 왜냐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그는 무리배가 되지 않아도 되며,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은 나 혼자 잘 살아보라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다. 나는 우리를 위해서 살도록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의식이 열리고 세상은 다스려지고, 세상은 회복된다. 예수님과 함께한 한 사람이 놀라운 세상을 열어간다!

3-9절 말씀은 예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말씀, 우리가 그를 힘입게 되면 얼마나 놀라웁게 세상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말씀이다.

(예; 이승만 대통령)

<찬양예배>

제목 :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유 성경: 미가서 3장 1-12절  
(Tag:)

1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2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3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4 그 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5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6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 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저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7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8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9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10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11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샅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위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12 이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미3:1-12)